



“소개합니다”

산림생태복원 전문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

글·사진_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 제공



UN총회에서 생태계복원 10개년 기본 계획(2021~2030)이 의결됨에 따라('19.3.), 국제적인 산림복원 추세는 점차 생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제42조의3을 근거로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0~2029)》을 수립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 전문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산림청 내 산림생태 복원과를 신설하고('21), 기후대별 수목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 기능 강화 및 실행조직을 확충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UN총회에서 생태계 복원 10개년 기본 계획(2021~2030)이 의결됨에 따라('19.3.), 국제적인 산림복원 추세는 점차 생태 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제42조의3을 근거로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0~2029)》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산림청 내 산림 생태복원과를 신설하고('21), 기후대별 수목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 기능 강화 및 실행조직을 확충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가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산림복원지원센터'와 실제 복원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 하고 공급하는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로 지정되어 정책지원을 밀도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호**에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해**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산림복원지원센터”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확산과 과도한 개발 압력 등으로 부득이하게도 산림 훼손이 발생합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는 훼손된 삼림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참조 생태계에 근거하여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보호구역 일대입니다.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해관계자 합의안을 먼저 마련하고 과학적 평가(위성·현장 정밀 진단을 통한 자연회복력 평가)와 사회정책 요소(국민의 안전과 경관적 사항)를 마스터플랜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을 근거로 산림청은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울진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일대에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연차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는 복원 완료 이후 1,2,5,10년에 맞춰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복원의 목표 달성 정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기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다”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복원사업은 2025년 10월 FAO와 UNEP(유엔환경기본계획)이 선정한 세계 복원 우수 사례로 지정되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복원 계획 수립부터 모니터링까지, 복원사업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연차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마련한 것, 둘째, 복원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기부의 숲’ 문화를 새롭게 만든 것, 셋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임업인에게 복원용 자생식물의 종자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임·농가가 이들 식물을 키워 소득을 얻는 체계를 마련한 것 등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계속되는 노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는 현장과학을 기반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의성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 주왕산 국립공원 일대 보호구역(199ha)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토대로 복원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축, 정맥, 울릉도와 독도 등에 대한 훼손 현장을 조사하여 복원 대상지를 발굴하고 복원 이후의 효과성을 분석합니다. 기업과 단체와 국민이 다양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합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는 훼손된 숲을 되살리자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 이야기로 8월호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